

의료시장의 변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이 봉 재

Recent Trends of Medical Market

Bong-Jae Lee,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Asan Medical Center,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서울의 일부 대형병원을 제외하고 병원계의 경영환경이 점차 악화되어 중소규모의 병원은 폐업한 곳이 많다. 병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보장성 강화에 따른 급여확대로 병원 수익에 기여하던 비급여 항목이 사라지고 있고, 여기에다 의료시장 개방이 멀지 않아, 병원계가 생존책을 마련하느라 고민 중이다. 의료는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기능과 함께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적정한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시설, 장비뿐 아니라 실력 있는 의료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대우를 해주어야 하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고, 의료계를 선도하는 병원의 서비스 질을 따라잡기 위하여 직원에 대한 교육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진료행위가 보험수가로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은 해외시장으로의 진출, 외국인환자의 유치, 건강식품이나 대체의학의 적용, 양한 방협진 등의 방법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하는 노력이 치열하다. 이비인후과 진료를 하다보면 개원의는 물론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봉직의도 수월하고, 수익에 도움이 될만한 시술방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으로는 본인의 시술방법이 의학적 근거가 있는지, 비용-효용성, 의료윤리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간혹 양심의 가책을 느낄 때도 있을 것이다.

저자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기획이사로서 매월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최근의 의료시장 변화 추이'에 대하여 간단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임상이비인후과'의 간행이사인 노환중 교수께서 당시 본인의 발표를 듣고 글을 강요하여 신계 되었다. 저자는 단지 이비인후과 봉직의로, 의료시장의 현황에 대하여 특별한 연구를 하거나 지식을 소유한 입장이 아닌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의료에 관한 이런저런 글을 읽다가 메모한 것을 정리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약간 가미하였다. 저자의 두서없는 글이 진료에 여념이 없는 이비인후과 의사에게 국내외 의료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외국의 우수한 병원이 인천 송도를 비롯하여 국내에 병원을 개설할 것이라는 보도가 의료계를 긴장시키기도 하였지만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시장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움직임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특정 진료과 중심의 외국 환자 공략에서 탈피해 진출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대형병원들도 가세하고 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아시아 및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의료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높았으며 특히 미용성형 분야에서 재미교포는 83%, 중국

교신저자 : 이봉재, 138-736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이비인후과학교실
전화 : (02) 3010-3714 · 전송 : (02) 489-2773
E-mail : bjlee@amc.seoul.kr

인은 71%가 한국에서 치료받을 생각이 있다고 답하였다. 일본인도 한국의 미용성형에 관한 의료수준을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다. 한방이나 척추수술 분야도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러시아의 부호들이 심장수술을 받기 위하여 한국을 찾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평가는 국내법이 의료광고를 매우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비하면 고무적인 현상으로 국내 경제수준이 근래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미용,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피부미용, 안면성형수술이 성행하면서 기술수준도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차병원그룹은 2004년 국내 병원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LA의 대형병원인 '할리우드 장로병원'을 6천만 달러에 인수, 최초로 국내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이룩하였으며 향후 20여개의 해외 병원을 사들일 계획이다. 예네트워크는 베트남 호치민시에 의원급 규모의 내과와 성형외과, 소아과, 치과를 개원하여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또한 중국 상하이에 '예메디컬센터'를 열고 국내 의료진 3명과 현지 의사들이 상주하면서 주로 중국 상류 여성층을 대상으로 미용성형에 대한 진료로 성공적인 진출을 하고 있다. 척추 수술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 역시 중국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척추병원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준비 없이 해외진출을 서두르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고급진료에 따르는 비싼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의료소비자가 충분한지를 조사하여야 하며 외국인 의사의 진료, 영리추구 혹은 국내로의 송금 등이 가능한지 현지의 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함께 외국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여 치료하는 소위 '의료관광'에 대한 기획도 활발하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병원 혹은 의사를 찾아 타국에 여행하면서 진료를 받는 것을 의료관광이라 할 수 있다. 재벌기업의 총수가 심각한 질환에 걸려 미국의 유명병원에 체류하면서 좋은 치료효과를 보았다는 보도를 접한 암환자나 중증환자 혹은 보호자들이 능력만 되면 보다 나은 진료를 받기 위하여 국외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다. 몇 해 전 삼쌍둥이 수술 성공으로 국내에도 소개된 바 있는 싱가포르 래플스 병원에서는 얼마 전 국제기구 사절단을 상대

로 '보톡스 시술과 건강검진 서비스 10% 할인권'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병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외국인 진료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뉴스위크지 최근보도에 의하면 아시아지역 의료관광 규모가 2012년까지 44억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대병원이 강남건진센터에 외국인 검진을 유치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또한 최근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에 분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사업추진단장인 방영주 교수는 '한국의 의료수준이 결코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만큼 인천청라지구에 들어서서 서울대병원 분원에서는 본격적인 외국인 진료가 이뤄질 것'이라고 하였다. 지난해 5월 개원한 세브란스 병원도 대외의료협력본부를 주축으로 동남아환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개인의원에서 시술되는 안면성형수술이나 음경확대술은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 의료관광으로 내한하는 여행객이 적지 않다. 또한 의료비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에 비하여 저렴하고 진료대기일이 짧은 것도 의료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이다. 다만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제도, 상품개발, 홍보에 있어서는 많이 뒤쳐진 상태이다. 의료산업화를 촉진할 듯 하였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인정이 곧 법제화될 것처럼 들리더니 최근 '의료산업 선진화 위원회'에서 영리법인에 대한 논의를 2008년 이후로 미룬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개인의원을 경영하는 안건영 원장은 '글로벌 시대에서 의료시장의 개방과 무한 경쟁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까지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였다.

국가적으로 해외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보건대 조규현 교수는 '첫째, 의료관광객 유치가 국제수지 개선과 고용창출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정부기관이 인식하여야 하며, 둘째, 의료기관 및 의사에 대한 광고규제를 완화하고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야 하며, 셋째, 관광업계와 병원이 공동으로 관광과 진료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완대체의학이 뜬다?

의사들의 진료행위 대부분이 보험수가로 규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경영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일부 개원의사들이 본인의 전문과목과 상관없이 건강식품, 노화방지, 피부미용, 비만클리닉 등의 진료를 시도하여 일부는 성공하기도 하였으나 지나친 시설투자와 국가경제 발전의 지연 등으로 인한 환자의 감소로 폐업하는 의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말기암 등의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질환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검증은 안되었지만 새로운 치료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노력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많이 행해지며 의사들 까지도 이용하는 실정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검증되지 않은 대체요법에 수십억 달러를 소비하였다.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으로도 치료되지 않는 말기암 환자들은 주변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치유되었다는 소문에 솔깃할 수 밖에 없으며 환자 혹은 보호자들의 약점을 노린 무면허 호객꾼이 대학병원의 중앙내과 환자대기석에 종종 출현한다.

보완대체의학을 등한시하던 의사들도 앞 다투어 보완대체의학 관련 학회에 가입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04년에는 ‘대한보완대체의학회’가 창립되면서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 소개돼 활성화된 보완대체의학으로는 동충치료(homeotherapy),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생약치료, 카이로프랙틱 등 70여종이 있다. 아로마 치료를 하고 있는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아로마테라피로 중이염이나 축농증의 경우 80%이상의 완치율을 보이는 등 놀라운 임상결과를 얻어냈다’고 잡지책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대조군의 설정이 없는 등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이다.

영국의 의과대학 중 40%가 보완대체의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독일 의사의 75% 이상이 동충요법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을 정도로 보완대체의학은 이제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의학이라는 특화된 학문이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보완대체의학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큰 밑바탕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장은 ‘의사들은 한의학의 철학적 등의 장점

을 받아들여 과학화를 위해 노력하고, 한의사들은 의사들의 과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한방의 현대화에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미국에서도 대체의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근래 미국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대체요법에 대한 연구 결과 ‘두 가지 널리 알려진 관절염 약-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이 관절염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위약보다 나을게 없다’고 결론지었다. 전립선에 좋다고 알려진 야자나무의 일종인 톱팔메토(saw palmetto)의 효능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우울증에 좋다고 알려진 고추나물(St. John's wort)의 효과도 실망스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분말 상어연골이 일부 암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별 통제를 받지 않는 200억불의 대체요법시장에 대한 과학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정부에서는 수백만 달러를 들여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대체요법을 신봉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마이동풍격이다.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을 복용하고 있는 79세 노인은 ‘7년 전 관절통으로 좋아하던 등산을 할 수 없었는데 약을 복용한 후 다시 등산이 가능해 졌다’며 어느 누구라도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없다고 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일부 의사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지만 환자가 약을 복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면 굳이 끊으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은 FDA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만 한약이나 식물 추출물에 대하여는 매우 관대한 편이라서 미국에서도 ‘blue ocean’으로 인식하고 관심이 대단하다. 무언가 유용한 것을 복용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위약효과는 환자로 하여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자신이 좋아지고 있다는 희망적인 생각이 동통완화에 대한 신체의 기전을 만든다. 미국인의 약 1/3정도가 대체의약품을 복용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에서 실시한 부정적인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대체약품의 판매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cine)을 신봉하는 대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의학이 과학성이 결여된 분야이므로 의사들이 대체의학에 너무 빠지는 것을 경계한다. 예를 들면 ‘나는 뱀기름(snake oil)을 수년간 써서 효과를 보았으며 그게 세상에서 최고’라는 식의 주장에

결 어

솔깃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지난 2005년 5월 18일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근거 확립을 목적으로 '제12차 보완대체의학 위원회(CAM)'를 열고 70여종의 보완대체의학의 검증작업을 통하여 70여종 모두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효과가 없다'고 발표하였지만 대체요법을 신봉하는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최종 결정은 유보한바 있다. 한 대체의학자는 '보완대체의학은 아직까지 학문적인 증거가 부족해 경험적 증거수준에 머물러있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가 적고 비보험수가가 많아 개원의들이 경영난의 돌파구로 여기고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보완대체의학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자 각종 건강기능식품과 보완대체의학을 빙자한 검증되지 않은 시술행위들이 범람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상업주의와 연관되어 윤리성이 의심되는 항목도 있다. IMS를 시술하는 의사와 한의사간에 법정다툼이 있었듯이 진료영역을 지키거나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단체간 충돌이 앞으로는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검증되지 않은 보완대체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이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인증하고 필요 시 보험을 적용시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보완대체의학이 의학의 한 분야로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효과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안정성도 확립되어야 한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한국이 제조업에서 시작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수출로 선진국 문턱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의료광고 규제의 완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등에 대하여 보다 유연한 정책을 펴나가면 국내 의료기관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인 환자를 국내로 유치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의학 측면에서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의 대부분이 다단계의 동물실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효용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 시판할 수 있듯이 대체의약품과 한약에 대하여도 검증과정을 거치도록 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은 물론 개인의 건강을 위하여 지출되는 의료비가 비용-효용성 면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의학을 전공하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서는 근거에 바탕을 둔 의료행위를 기본 자세로 하여야 하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하여는 의학적으로 검증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중심 단어 : 의료시장 · 변화.